

부모감독,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과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최유석(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임지영(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초등학생은 미디어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과몰입함에 따라 스스로 미디어기기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고(이경님, 2021),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미디어기기에 점점 더 의존하여 미디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면서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짐(김형연, 김민주, 2020; 이소은, 김미나, 2021).
- 부모가 자녀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자녀를 더욱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미디어기기 사용시간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미디어기기 사용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부모감독 요인은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전반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인이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된 경우이거나 초등학생 대상이더라도 횡단적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감독, 미디어기기 과다사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연구방법

●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17년(10차)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년 간격으로 2020년(13차) 초등학교 6학년 시기까지 측정된 자료를 사용함.

● 자료분석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변인의 측정시기별 변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별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함. 각 변인별 모형을 추정한 이후 부모감독,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과 행복감의 종단적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하였고, Sobel(1982)의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미디어기기 과다사용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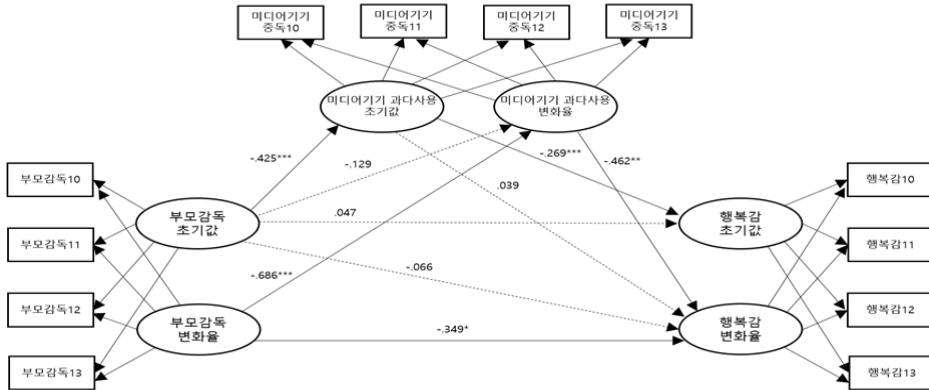
연구결과

● 부모감독은 4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미디어기기 과다사용은 10차(2017)부터 11차(2018년)까지 조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3년간 계속 증가하였음. 행복감은 4년간 계속 감소하였음.

● 초기값과 변화율의 경우, 부모감독,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과 행복감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발달궤적에 있어서 세 요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개 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부모감독 초기값이 행복감의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 초기값은 부모감독 초기값과 행복감 초기값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감독 변화율이 행복감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기기 과다사용 변화율은 부모감독 변화율과 행복감 변화율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최종연구모형 및 표준화 경로계수

논의 및 결론

- 초등학생들에 대한 부모감독이 줄어드는 것은 부모의 애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에게서 조금씩 독립하기 때문에(이현숙, 2022), 부모가 자녀의 자주적인 생활과 독립을 장려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자녀양육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횡단적 영향뿐만 아니라 종단적 영향효과가 규명된 것으로, 초등학생 시기의 행복감 관리방안으로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초등학생들이 미디어에만 과몰입하지 않고 균등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유시간의 질을 고려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감독은 직접적으로 행복감을 높이진 않지만 미디어기기 사용 감소를 통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며, 억압과 감시가 아닌 보호자와 양육자로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함.